

안녕하십니까?
지식 캠퍼스의 김원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논어 제10장

‘잘 살게 하는 것이 가르침보다 먼저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1978년도에

중국의 개혁·개방의 선도자인
덩샤오핑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흑묘백묘론, 말하자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말을 했죠.

그게 그 당시에
덩샤오핑이 추구한 것이

옛날에 소강 사회 즉, 말하자면
일상에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그러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중산층 정도의 삶이죠.

그러한 소강 사회로 가려면
결국은 경제력이 우선돼야 하는데

우선시되려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결국은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즉, 흑묘백묘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덩샤오핑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말의 뒤에
‘이것을 나는 선부론이다’

즉, ‘먼저 선’(先)자

부유하다 할 때의 ‘잘살 부’(富)자
선부론(先富論).

즉 ‘먼저 부유하게 하자’는
그런 논법이다, 논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옛날에 공자께서
선부후교론(先富後教論)을 제시했는데

나는 이 말에서 선부,
즉 먼저 부유하게 하라는 말

이것을 내가 차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논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안빈낙도를 추구했고

공자는 인(仁)과 그다음에 도(道)와

신(信)과 충(忠)과 서(恕)
이런 것을 늘 추구했죠.

그러니까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것을

즐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공자의 삶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공자는 밑에 제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속수(束脩), 말하자면
일정 정도의 예물을 가지고 오면

나는 그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늘 제자들에게도 꼭 얘기를 했죠.

뭐냐 하면 나를 찾아올 때는 속수(束脩)

말하자면 10가닥 정도의
육포를 묶은 거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오면
나는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물론 학비 개념은 아니죠.

스승을 뵈는 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약간 좀 비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속수(束脩)야말로 약간의
스승님에 대해서 또 선생님에 바치는

일종의 적지만 학비 개념이 아니겠느냐.

즉, 공자의 제자들이
비교적 못 산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정도 갖추기가
쉽지 않느냐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자는 스스로도
제자들을 대단히 많이 받았고

또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출신을 고려해서 가르친다거나

또는 출신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공자가 어쨌든 스승으로서의
충분한 것을 보여주었지만

공자가 속수(束脩)라는 말을 했을 때는
공자 나름대로도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자가 생각할 때 군자와 소인을
규정하고 있는 그 말 중에서

군자는 분명히 법도를 생각하고
소인은 은혜를 생각한다.

소인은 이익에서 많이 놀고 있는데
그 이익에서 놀다 보면

결국 원망이 많아진다고
<이인> 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자가 생각할 때의
소인과 군자의 차이는

분명히 재물에 대한 것이지만

공자 스스로도 재물에 대한 것은
대단히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사마천도 <사기 화식열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산이 열 배 많으면 몸을 낮추고
백 배 많으면 두려워하고

천 배 많으면 그의 일을 해 주고

만 배 많으면 그의 하인이 되는 것은
사물의 이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공자는 사마천의 그 말처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어느 날 염유라고 하는 제자

염유, 공자의 제자 중에서
돈이 많은 제자가 몇 명이 있었지만

염유도 그 중의 한 명입니다.

누구나 하면 염유가 그 당시 계손씨
즉, 계씨의 가신이면서

재정담당을 책임졌던 그런 제자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창고지기 그다음에

재물 관련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염유가 공자가 그 당시
위나라를 방문했었죠.

위나라 군주를 만나러 갔는데 마침
수레를 몰고 공자를 모시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모시고 가는데
공자가 길을 가다 보니까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던졌죠.

"아, 백성들이 참 많구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염유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백성들이 많은데

무엇을 해 줘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대뜸 한다는 말씀이

"그들을 선부(先富),
먼저 부유하게 하라."

즉, "잘 살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염유가 깜짝 놀라죠.

잘 살게 하라고 하니까,
즉, 부유하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 이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의아해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잘 살게 된다면

그다음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교지, 후교지(後敎之),

그들을 그리고 나서 가르쳐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염유가 물어보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백성들이 많으니
그들을 먼저 부유하게 해서

그들이 의식주 문제를
신경 쓰지 않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유가의 도(道)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한다."

만약에 백성들이 부유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것을 배우지 않으려고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말은 공자가 생각할 때
백성들을 잘 살게 하라고 한 의도는

먼저 잘 살게 하고
나중에 가르치는 것이 먼저지

우리처럼, 즉 공자를 포함한 제자들과,
선비잖아요, 선비들.

즉, 군자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
지식인의 개념과는 다른 거죠.

백성들은 늘 관심 있는 것이
생계 문제죠.

백성들한테 예의나 염치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거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할 수도 있고

반란을 일으키면 결국
군주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이러한 생각은
나중에 맹자에게도 이르렀고

그다음에 순자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죠. 왜?

맹자도 백성들과
여민동락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십 된 자, 칠십 된 자
나이를 얘기하면서

비단옷을 때로는
결칠 수 있어야 하고

또 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공자가 생각했던
부(富)의 문제가

즉, 백성들의 삶을
어느 정도 윤택하게 하지 않으면

군주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생각했던
부(富)에 대한 관점

먼저 백성들을 잘 살게 하자는 것은

공자가 염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염유와의 또 다른 대화에서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염유라는 제자한테
어느 날 물어본 역사가 있어요.

뭐냐 하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염유야, 너는 네가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염유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사방 육칠십 리

또는 오륙십 리 정도 되는 땅을
다스리게만 된다면

3년 될 무렵이면
백성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법이나
음악과 같은 것에 관해서는

손을 쓰지 않고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여기서 바로 족민,
풍족할 족(足)자에 백성 민(民)자,

즉,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예악(禮樂)은
논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아닙니까?

예(禮)와 악(樂) 같은 것은
군자학에 말기겠다는 거죠.

즉, 백성들은 경제적인 문제만
충족이 되면

나머지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지만

위에 있는,
상급자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禮)와 악(樂) 등
도덕성으로 무장을 해야만

밑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밑에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그런 논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공자가 결코 부(富)의 문제를
도외시하지는 않았다.

한번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원헌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원헌이라는 제자는 누구냐 하면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제자 2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안회고요.

안회 못지않게 가난했던 제자가
원헌입니다.

원헌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여쭙봤어요,
공자한테.

그랬더니 공자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에 도(道)가 있을 때
자리를 차지해서 녹봉을 받고

나라에 도(道)가 없는데도

물러나지 않고 녹봉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녹봉에 대해서

즉, 공자가 여기서도 말한 것은

불의하면서도 녹봉을 받는 것
이 자체에 부끄러워하는 것이지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군자의 삶을 지향하고 있고

사회의 지도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녹봉을
안 받겠다는 얘기이지

백성들의 경우라면 다르다는 얘기죠.

바로 공자가 생각했을 때의 삶은,
공자가 추구했던 것은

분명히 녹봉보다는
군자다운 삶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공자가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 하면 위나라 있죠?

위나라에 갔을 때
공자의 제자인 자로의 처형인

안탁추의 집에 가서
거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위나라의 영공이
공자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노나라에 있을 때
녹봉을 얼마나 받았소?"라고 얘기하니까

"저는요, 그 당시에 조,
(옛날엔 녹봉을 좁쌀로 받았잖아요)

좁쌀 6만 두를 받았습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위나라 사람들이 저한테
6만 두를 줬습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군주가 준 녹봉의 양이,
물론 연봉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
논어에 나와 있어서

공자께서 그 당시 받았던 녹봉의 양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15년 동안
북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벼슬한 시간은 정말 적었습니다.

몇 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평생 그다음에
이 나라, 저 나라 유세하고 나서

제자들과 결국 있었을 때도 그렇고

늘 베풀하지 않았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공자는 돈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공자가 염유와의 대화에서

"먼저 부유하게 하고 나중에
그러고 나서 가르쳐라."라고 하는

선부후교론은 덩샤오핑에 의해서
그것이 계승되었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중국 자주 가실 겁니다.

중국 사람들 만나면 첫 번째 얘기할 때

"당신 연봉 얼마나?"
"당신 집은 어디 사냐?" 그러면서

돈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중국 사람들이 돈 얘기를 빼놓고

과연 다른 얘기를 떠올릴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돈에 대해서 대단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굳이
덩샤오핑을 얘기하지 않고

굳이 논어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유가로서 유가다운 삶,
선비다운 삶, 군자다운 삶을 추구하되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경우에
물론 한정된 것이지만

돈을 즉, 부유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위정자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 한번 내려 볼까요?

공자가 부(富)의 중요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가 얘기한 선부후교론의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정치적인 화두가
충분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공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관중,

공자가 그렇게 비판했던,
그릇이 작다고 비판했던 관중도

'목민' 편에서,
<관자> '목민' 편에서 나오죠.

'국가에 비옥한 토지가 있지만,
백성이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은

생산도구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고

산림과 바다에 각종 물품이 생산되지만,
백성의 생활이 풍요롭지 못한 것은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해서이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둔다면

관중이 그토록 추구했던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

그것은 공자가 위나라를 방문했을 때

영공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함께 거론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논어>에서

또 공자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한
이 대목이야말로

아마 여러분들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또 삶의 여유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직장에서의 직장인다운 삶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어>를
제10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관의 제왕이고
또 공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찾아본 이 강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 공자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굳건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당대 지식인의 표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이미
30살에 이름을 떨쳤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그 당시
제후, 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유가의 인문정신과
교육의 표상이 되고 있죠.

우리가 유가를 빼놓고, 공자를 빼놓고
동양의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공자가 얘기했던 교우관계
또 입신의 근본으로서의 효도와 우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의 문제, 군자와 소인의 문제,

예의범절의 문제, 소신과 화이부동,
과유불급, 중용의 미덕

또 허명을 경계하고
또 안빈낙도의 삶과 온고지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선부후교의 논의까지

<논어>에는 우리가 고민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대단히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뻔히 속이 들여다보이는 그 당시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춘추시대 때

공자는 분명 소신을 갖고 살다 간
참 스승이었죠.

그의 가르침이 왜
그 당시에든 주목을 받았고

또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해 온
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정의하고

또 기본에 충실한 삶의
정신이 배어있는 <논어>라는 책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위정자나 선비들에게

또 정치가에게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주공의 시대로는 돌아가지 못했으나

그의 사유가 지금,
2500년을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속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되새겨볼 만한

또 귀감이 될 만한 구절들이
저는 대단히 많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도 될 만한

명언, 명구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논어>라는 책을 통해서

또 <논어>에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에 윤기를 더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이
좀 더 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대단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